

### 11일 강원경제인 송년음악회

연말을 맞아 강원경제인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이 마련된다. 강원도와 강원경제단체연합회는 오는 11일 오후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경제인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음악회 출연진은 호반윈드오케스트라(상임 지휘자 윤승관), 소프라노 민은홍, 테너 정제운, 국악인 정연빈, 가수 노사연·이무송·박상철 등으로 구성되며 성악과 국악, 가요 등 풍성한 음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 장학금·봉사·지역사회 발전... 사회적 책임 '솔선수범'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건설업계를 대표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자세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2월 '2019년 우수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필두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건설 이공계 살리기 및 우수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 총 1억5300만원의 장학금을 51개 대학, 52명의 대학생에게 전달했다. 2002년부터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건협은 지금까지 총 756명에게 21억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4월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 활동에 구호성금 1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성금은 건협 본회와 서울시회, 인천시회, 경기도회, 강원도회, 경북도회, 경남도회,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마련한 것으로, 강



대한건설협회가 강원 지역 산불 피해 구호성금을 전달하는 모습.

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고성·강릉·속초·동해 등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용됐다.

10월에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이재민 지원 성금을 지원했다. 영덕군청과 울진군청에 8000만원,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5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건협의 사회공헌 활동은 국민의 생활 속으로도 파고든다. 최근에는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폈다. 서울

방배동 전원마을 등 저소득 가정에 연탄 4만장을 전달했는데 이런 연탄나눔은 건협과 공제조합이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사다.

이 밖에 연말을 앞두고 군부대 위문 성금 지원, 이웃사랑 쌀 나눔 행사 등도 펼칠 예정이다.

건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행복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